

은행권, 금리 내리고 대출 연장 소상공인 명절자금 ‘87조’ 푼다

농협·기업·수협, 23.5조 공급
4대 시중 은행서 60.5조 등 지원
기존 금리대비 최대 2%p 인하

은행권이 설 명절을 맞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운전자금을 공급한다. 명절 기간에는 상품 확보, 상여금 지급 등을 이유로 일시적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 대출과 대출 연장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는 목표다.

1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소매은행은 올해 설 명절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로 87조1000억원을 공급한다. 3대 특수은행(농협·기업·수협)이 23조5000억원(신규 9억·연장 14조5000억원)을 공급하며,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이 60조5000억원(신규 24조5000억원·연장 36조원)을 공급한다. 5대 지방은행(부산·iM·경남·광주·전북)이 4조1000억원(신규 2조500억원·연장 2조500억원)을 공급한다. 금리는 기존 대출 대비 최대 연 2.0%포인트(p) 낮게 책정한다.

농협은행은 오는 3월 4일까지 신규 대출 5조원 및 만기연장 8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금리 감면폭은 최대 2.0%p로 차등 적용되며, 영업점에서 대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은 오는 3월 5일까지 신규



주요 은행이 설 명절을 맞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자금을 공급한다. 서울 시내의 주요 은행권 ATM. /뉴시스

대출 3조5000억원 및 만기연장 5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대출 목적은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목적으로, 결제성 자금대출에 한해 최대 0.3%p 이내의 금리감면을 제공한다.

수협은행은 3월 4일까지 신규대출 5000억원 및 만기연장 5000억원을 공급한다. 금리 감면은 거래 실적 등에 따라 최대 1.5%p까지 적용되며, 대출 상담은 영업점을 통해 진행한다.

4대 시중은행은 오는 3월 13일까지 운전자금 대출을 운영한다. 각 은행이 신규대출 6조1250억원과 9조원 규모의 만기연장을 취급하며, 최대 금리 감면폭은 1.5%p다. 단, 금리 감면폭은 기존 거래 실적 등을 고려해 책정되는 만큼 기존 주거래 은행에서 거래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각각 신규대출 4000억원과 만기연장 4000억원을 공급한다. 오는 3월 19일까지 상담 및 대출을 운영하며, 최대 금리 감면폭은 1.0%p다.

iM뱅크는 오는 3월 6일까지 운전자금 대출을 운영한다. 신규대출 5000억원과 만기대출 5000억원을 공급하며, 우대금리는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을 종합해 적용한다.

광주은행은 이달 27일까지 신규대출 5000억원과 만기연장 5000억원을 공급하며, 전북은행도 오는 25일까지 신규대출 2500억원과 만기연장 25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 대출을 운영한다. 우대금리는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을 고려해 책정한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신용카드 가맹점 309만곳 ‘우대 수수료율’

금융위, 연매출 30억 이하 업체 대상
가맹점당 평균 41만원 돌려받을 듯

오는 14일부터 연 매출이 30억원 이하인 신용카드 가맹점 308만7000곳에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상반기(1~6월) 영세·중소가맹점에 선정된 신용카드 가맹점 308만7000곳에 14일부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322만5000곳 중 95.7%가 이에 해당한다.

전자결제대행사(PG사) 하위 가맹점 193만8000곳, 개인·법인 택시 사업자 16만6000곳도 마찬가지다. 수수료율은 매출액에 따라 0.4~1.45%, 체크카드

는 0.15~1.15%다.

여신금융협회는 해당 신용카드 가맹점에 안내문을 보냈다. 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 콜센터 등을 통해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PG사 가맹점과 택시 사업자는 이용하고 있는 PG사와 교통정산 사업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반기 개업한 신용카드 가맹점 중 이번에 매출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약 15만9000곳도 우대 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된다.

우대 수수료율이 결정된 가맹점에 대한 총환급액은 약 643억3000만원이다. 가맹점당 평균 약 41만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나유리 기자 yul115@

빚쟁이 오지급 URL 문자 ‘스미싱 주의보’

금융위 “보상금 관련 메시지에 URL 포함돼 있다면 100% 사기”

금융당국이 빚쟁이 오지급 보상안내의 URL 링크는 사기라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빚쟁이의 오지급 사고 관련 보상금 지급 발표로 보상안내의 URL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스미싱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

당국은 특히 빚쟁이 오지급 보상금 안내를 사칭해 URL 링크를 포함한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가 유포될 수 있다고 보고, “보상금 관련 안내 메시지에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돼 있다면 100% 사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빚쟁이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고객 안내를 할 경우 메시지에 URL 링크를 절대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배너 링크나 앱 푸시 등 유사 기능도 제공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빚쟁이 역시 스미싱 유의사항에 대한 대고객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하면 악성 앱이 설치돼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융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악성 앱이 설치되면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 통화내역, 사진, 연락처 등이 탈취될 수 있으며, 발신번호를 빚쟁이 고객센터 등으로 조작해 전화를 거는 것도 가능하다. 피해자가 112나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신고하러 해도 통화가 가로채질 수 있다. /나유리 기자

“귀성길, 고속도로 휴게소서 신권 뺏으세요”

은행권, 13~14일 이동점포 운영
부산·동대구역에서도 신권 교환

은행권이 귀성객이 집중되는 오는 13~14일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이동점포에서는 신권 교환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제공한다. 부산역과 동대구역에는 기차로 이동하는 귀성객을 위한 이동점포가 운영되며, 주요 공항에서는 국·내외 여행객을 위해 환전소를 휴무없이 운영한다.

◆ 수도권 휴게소에 ‘이동점포’ 출점

KB국민은행은 13~14일 양일간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기흥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13일에는 신권교환만 가능하며, 14일에는 신권교환 및 ATM 이용이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13~14일 이틀 동안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화성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연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신권교환 및 ATM을 이용한 금융업무를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13~14일 양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양재 만남의광장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운영시간 내 신권교환 및 ATM 이용이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13~14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망향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출점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양일간 신권교환 및 ATM을 이용할 수 있다.

NH농협은행은 13~14일 양일간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하남드림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ATM을 이용하거나 신권을 교환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오는 13일 하루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덕평휴게소에 이동점포를 설치하고 신권교환을 실시한다. 운영시간은 오후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ATM 이용은 불가하다.

◆ 지방은행, 지역 주요 휴게소에

BNK부산은행은 13~14일 양일간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진영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ATM 이용 및 신권교환이 가능하다.

iM뱅크는 13~14일 이틀 동안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동명휴게소에 이동점포를 출점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신권교환 및 ATM을 이용한 금융업무를 제공한다.

BNK경남은행은 오는 13~14일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진영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신권교환

은 13일에만 가능하며, ATM은 13~14일 양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광주은행은 오는 13일 하루동안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백양사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설치하고 신권교환을 제공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ATM 이용은 불가하다.

전북은행은 13~14일 양일간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여산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13일에는 신권교환 및 ATM 이용이 가능하고, 14일에는 ATM만 운영한다.

◆ 부산역·동대구역에서도 신권 교환

BNK부산은행은 기차를 이용하는 귀성객을 위해 오는 13~14일 양일간 부산역 광장에서도 신권 교환을 제공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iM뱅크도 13~14일 이틀 동안 동대구역 광장에서 신권교환을 제공하고 ATM도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연휴 기간 동안 내 입·출국하는 고객을 위해 공항 내 은행 환전소도 지속 운영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국민은행은 인천공항에서 환전소를 휴무없이 운영한다. 신한은행은 김포공항 및 청주은행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며, iM뱅크도 대구국제공항에서 환전소를 휴무없이 운영한다. /안승진 기자



정진완 우리은행장(왼쪽 세번째)과 관계자들이 ‘AI 기반 내부통제 및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시연회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은행

우리은행, AI 기반 내부통제·안전관리 나서

내달부터 전 영업점 단계적 적용

우리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AI 기반 내부통제 및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3월부터 전 영업점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IP CCTV 중앙집중화와 AI 영상분석 기술을 결합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신속한 사고 대응을 구현했다. AI 기반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전 영업점 CCTV 영상을 본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AI 영상분석을 활용해 ▲고객 인출·계좌이체 등 중요 거래 시 이상징후 탐지 ▲CCTV 기반 현금계수 결과 자동 추출·저장 ▲내금고·기계

실 출입 시 2인 1조 원칙 준수 여부 감시 등 주요 내부통제 기능을 적용한다.

우리은행은 지난 5일 본점에서 해당 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적용 사례를 공유하는 시연회를 열고 실제 운영 환경을 점검했다. 우리은행은 시스템 도입을 통해 전 영업점에 대한 24시간·365일 상시 감시 체계가 구축해 금융사고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고 영업점 자체 점검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세훈 우리은행 업무지원그룹 부행장은 “앞으로도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금융 환경 조성을 위해 내부통제와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